



“금속노조 13기 투쟁 출발”

금속노조 2024년 시무식 ... “노동탄압 분쇄·산별노조 강화 앞장서겠다”

금속노조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전태일 열사 앞에서 노동탄압 분쇄와 산별노조 강화를 위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는 1월 2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 열사 묘역에서 2024년 시무식을 열었다. 이날 시무식에 노조 경기지부, 서울지부, 기아자동차지부 간부와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13기 위원장에 당선되고 첫 공식 일정으로 민주노총 시무식과 금속노조 시무식에 참석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새해 인사를 통해 “금속노조는 밖으로 심화·확대하는 사회 불평등·불안정 해소를 위한 실천을 하면서, 안으로 노조 혁신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격차축소를 위한 산별교섭 실현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



화 ▲하청노동자 교섭권·쟁의권 확대 등 노조할 권리 보장 투쟁을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총선 시기 재쟁점화해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생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창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집권 3년 차인 2024년에 노동조합 고립·무력화 공격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면서 “금속노조 13기는 노조 무력화 공세 저지 조기 전선을 치고, 노조 사회위상 재구축 기획과 전체 조합원이 함께 싸울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제시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새해 첫 햇살의 온기가 조합원 동지와 가족, 우리 사회 모두에게 따스하게 퍼지기를 기원한다”라면서 “위원장으로서 2024년 노조의 첫 투쟁을 부족함 없

이 준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규선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시무식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권보다 더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혁신이다”라면서 “놈들이 한 걸음 땄 때 우리가

거리에서 한 걸음 더 뛰고, 현장에서 두 걸음 더 뛰어서 총선 승리하고 윤석열 없는 해로 만들어 보자”라고 호소했다.

신임 김태을 금속노조 서울지부장은 “서울지부는 금속노조 강화·확대 사업에서 역할과 임무가 있다면 반드시 해내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외롭지 않게, 꾸준히 묵묵히 활동하는 현장 동지들이 의지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결의했다.

2024년 금속노조 시무식에 참석한 노조 임원, 사무처, 서울지부, 경기지부 조합원들은 백기완, 김용균, 박영진, 배재형, 윤주형, 최종범 동지의 묘역 등에서 추모와 헌화를 하며 열사 정신을 되새겼다.